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 포장 전시회를 다녀와서

China Packtech & Foodtech 2002

김영순/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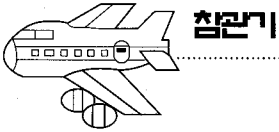
2002년은 중국에 있어 WTO가입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중국경제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해이다.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 등의 호재들이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중국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2001년)를 살펴보면 GDP증가율 7.3%, GDP총액 11,505억불 수출 2,590억불(전년대비 3.8% 증가), 수입 2,430억불(전년대비 8.1% 증가)로 무역 흑자가 160억불이다. 이로써 전세계 무역시장의 30%를 차지하고있는 중국은 그 잠재력으로 볼 때 곧 7~8% 이상의 경제성장율이 예상되며 세계유수의 유통업체의 발빠른 진출로 서구식 유통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중국시장을 WTO 가입 이후 지구촌의 최대시장으로 주목하고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포항제철 등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 생산 판매법인을 설립하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도 중국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중 신풍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일양약품, 한미약품, 대한약품

등이 현지 투자를 하고있고 삼천당제약, 일양약품 등도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중국의 포장분야를 살펴보면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의 일환으로 매년 10억불 이상을 포장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포장산업은 연간 30%의 성장률을 보이고있는 고도성장 산업의 하나이다. 특히 이 분야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가공 및 포장분야는 93년과99년 사이에 생산이 두 배로 증가하였으나 포장기술이나 설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여 포장기계분야의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4,000여대의 포장기계를 수입함으로써 세계 제1의 포장기계 수입국이 되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미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으로 한국은 아직 그 대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으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인의 한국포장기계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본격적인 한국포장기계의 중국 진출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주)디에스아이(대표이사 김진철)의 상하이 현지공장의 가동을 필두로 (주)신보성기업(대표이사 박승근), 동양기계(대



◀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과 포장 전시회 전경

표 오군재), (주)케이케이(대표이사 이정민), (주)카스(대표이사 김동진), (주)한양포장기계(대표이사 이강호) 등이 중국현지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화인에프에이(주)(대표이사 박종현)의 대규모 수액제조라인의 합작공장의 계획과 을성정공(대표 오필재)의 창수공단 생산공장의 설립 등은 대표적 포장업계의 중국진출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CHINA PACKTECH & FOODTECH 2002"에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서울시의 지원으로 한국관을 형성하여 동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포장기자재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포장기계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CHINA PACKTECH & FOODTECH

2002" 전시회의 규모는 총 전시면적 10,000㎡, 참가규모로는 10개국 150개 업체이며 관람객 약 25,000명(추정)으로 식품전시회인 SIAL CHINA 2002(30개국 450개 업체)가 동시에 개최되어 전시회 규모가 크고 더욱 활발하였다.

전시참가 30개국(식품 포함)중 중국을 제외한 외국사로서는 한국을 비롯, 프랑스, 캐나다, 홍콩, 이태리,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었으며 한국관에는 10개사가 부스전시를 3개사가 카탈로그 전시를 실시하여 총 117㎡의 규모로 태극문양이 디자인된 국가관을 형성하여 관람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한 한국관에 (주)세종파마텍, (주)신보성기업, 한얼기계, (주)삼영화학, (주)동구전자, (주)피엔에스테크, 을성정, (주)에스엠코인 (주)엔터라인 등과 협회 홍보관에는 (주)삼각기



◀ 중국 상하이 국제 식품과 포장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포장 기계협회 부스

계, (주)한백자동기, 서울자동포장기계 등이 카탈로그 전시를 실시하여 제품홍보에 힘을 썼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성파로는 총 상담건수 1,772건으로 상담액 5,530,000\$로 그 중 계약액이 219,500\$의 유형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대리점 계약 상담 50건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형적인 효과로서는 중국내의 전시회에 한국관 형성으로 국가이미지의 홍보 및 한국포장기계산업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유형무형의 큰 성과는 우리협회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운영중인 해외시장개척위원회 5개지역 중 중국지역에 대한 꾸준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는 98년 중국 광저우 전시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상하이와 베이징전시회 참가에 이어 6번째 참가행사로 계속적인 관심과 국가관 홍보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인터메세여행사와 더불어 약 40명의 인원이

동전시회에 참관하는 행사도 겸하여 실시하였다.

앞으로 계속 우리 협회는 해외시장지역별 위원회를 계속 가동하여 수출사업에 진력할 예정이며 참가 부스료의 50% 지원 예정으로 2002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China Pack2002/China Food 2002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많은 업체의 신청을 기다리고있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프랑스 EXPOSITION사와 한국 프로모살롱의 폭넓은 전시회 홍보전략과 중국 현지 주관사인 중국식품과 포장기계공업협회와 중국포장식품기계총공사의 한국관 설치에 대한 칭찬과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서울시의 한국관 지원과 현지 출장인의 세심한 배려와 애로사항 해결은 큰 도움을 주었으며 주관사와의 협력과 유대강화는 국위를 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